

작품 개요

「가는 길」은 25세 되던 1947년 1월 23일 김소월(金素月, 1902~1934)의 시에 곡을 붙인 작품으로 1978년 7월 21일 수정하고 1990년 3월 2일 재수정한 곡이다.

HLKA(경성중앙방송국)에서 부인인 알토 유경손(柳慶孫, 1921~2011)과 나운영 반주로 초연되었고, 1952년에 발행된 나운영의 첫번째 가곡집 『아흔 아홉 양』에서 출판되었다.

작품 해설

이 곡은 한국 작곡가들에게 가장 친숙했던 김소월의 시를 가곡화한 것이다. 작곡자 자신이 “이 곡은 우리 민요에 대한 연구에서 얻은 산물로서 한국적인 멜로디와 화성·리듬의 조화를 도모한 작품이다.” 라고 해설을 붙였듯이 선율의 전반적인 흐름은 두번째 프레이즈를 제외하고는 우리 민요의 대부분에서 볼 수 있는 분위기와 흡사하다.

서양의 가곡처럼 피아노를 동반한 성악곡이기는 하나 선율 및 리듬은 동양적인 5음음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장단도 국악적인 요소(당김음과 꾸임음을 사용한 국악풍의 선율, 국악풍의 장단을 활용)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프레이즈도 자유스럽게 구사하기 보다 4 『마디 단위로 절제된 형식미를 갖추고 있어서 전통민요의 현대적 재생을 시도해 낸 듯 하다.

- 이충자, 나운영의 가곡 작품의 유형별 분석, 음악과 민족 제9호, 민족음악연구소 중에서 -

가는길

金素月 作诗
郑运亨 作曲

尺八用ナリ

바라보기안기

The musical score is written on aged paper and consists of three systems of staves. Each system includes a vocal line and a piano accompaniment. The piano part is written in a simplified notation style, likely for a specific instrument like the尺八 (shakuhachi). The score includes various musical notations such as notes, rests, and dynamic markings like *f*, *mf*, *mp*, and *sf*. The lyrics are written in Korean and are placed below the vocal line.

2 립 - 다 알 을 할 가 라 기 2 - 리 취
= 능 할 가 2 래 도 - 피 시 다 - 단 번
자 산 어 - 뎌 가 - 만 취 들 어 가 - 다 취